`군산형 일자리' 기관 표창, 우수사례 선정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전기차 기업 5개사 5,171억 투자
상생 시스템 체계 구축 주목

군산=백용규 기자

군산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이뤄진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우수사례로 선정,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잇따른 지역 주력산업 붕괴로 2018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산업 구조의 혁신을 도모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차라는 신산업 전환과 함께 노사 간,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전기차 관련 참여기업 5개사가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총 5,171억원의 신규 투자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24만대의 전기차 생산과 1,700여명의 고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전국에서 네번째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지정된 이후 6월에 명신이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1호 소형화물인 다니고 밴을 생산 출고했으며, 8월에는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이 준공해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꾸려 상생협약 이행을 구체화하는 시스템 체계 구축 운영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또 공동교섭, 노사투명경영 참여제도 도입 등 혁신적 노사 상생관계를 만들어가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며, "군산형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완주군, 전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적극 활용

완주군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북도의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태 관리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8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를 대신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 시기, 보수범위, 공사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고 있다.

군에서는 최근 관내 3개 단지의 기술자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소방 배관 단열 및 옥상 방수 공법,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시기 등 기술자문을 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공동주택이 신청 가능하며 기술자문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관리주체가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완주군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전문지식 전달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완주=염재복 기자

권익현, "겨울철 재해 예방 철저하게"

시설하우스 점검과 온풍기 전달

권익현 부안군수가 8일 동진면 시설감자 파종현장과 행안·줄포면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겨울철 재해 예방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동진면 감자농가를 방문해 분주하게 파종하는 농가를 격려하고 올 초 유례없는 한파와 같은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난방장비 정상작동 여부 등 시설하우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올해 부안에서는 97여 농가가 참여해 1678동 167ha 규모로 감자를 파종했다.

부안감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간척지 갯벌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살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당도가 뛰어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군은 해마다 1억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480여 동의 시설하우스의 노후화된 비닐교체 비용을 지원해 자연재난을 대비했다.

올 초 유례없는 한파로 감자농가 한해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자 2,2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무상 공급했으며 계화면 감자농가에 5,000만원 상당의 전기온풍기를 공급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행안면과 줄포면에 설치된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권익현 군수는 최근 관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전국적으로 육용오리 등 10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독과 차단방역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전국에서 AI가 발생한 농장을 다녀간 축산차량이 언제 어느 때 부안의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할지 모르니 평상시에 모든 축산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소독을 실시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부안군-농협-아이쿱생협, 국산밀 소비촉진 협약

부안군과 부안지역 6개 농협,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이쿱생협)는 8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입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안군수와 부안농협·부안중앙농협·남부안농협·계화농협·변산농협·하서농협 조합장,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 유재흠 우리밀영농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밀 베이커리의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이쿱생협이 제품의 개발·생산·공급을, 전국 최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담당해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행정·농협·아이쿱생협 등 3자 협약을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이들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맛과 품질의 제품 개발, 국산밀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고급화, 국산밀을 활용한 베이커리 생산 및 유통,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 국산밀 자급률 1%의 벽을 넘어 국산밀 소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군은 국산밀 재배면적을 올해 500ha에서 오는 2025년 1,000ha까지 늘려감으로써 국내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 제정, 국산밀 산업 발전계획 용역,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급 및 채종포단지 조성, 저장시설 구축, 소비촉진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이다. /부안=고병하 기자

정읍시, 따끈따끈 '칠보농협 쌍화차' 홈쇼핑서 만나요

정읍시가 TV홈쇼핑을 통해 농산가공품 판매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읍 고춧가루 판매 활성화를 위해 NS홈쇼핑 판매방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오는 9일 15시 30분 NS홈쇼핑 채널을 통해 '칠보농협 쌍화차(1세트 60포, 69,900원)'를 40분간 선보일 예정이다. 쌍화차는 겨울철 감기 몸살 특히 초기 감기를 잡는 데 효과적이다.

칠보농협 쌍화차는 방부제, 인공향료, 색소를 넣지 않으며 까다롭게 선별한 최상의 11가지 천연 약초가 들어간 제품이다. 그중 숙지황은 구증구포한 정읍지황을 사용하고 감초는 내몽고지역의 자연산 양외감초, 계피는 YB2 등급의 원료를 사용한다.

시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한 매출 증대는 곧 지역 농가의 이익이므로 향후 판로 확대 등 지속 성장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부안군,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부안군은 75세 이상 고령층의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추가 방문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과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이 단축 조정됨에 따라 신속한 접종을 위한 대책으로 병·의원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찾아가는 추가 방문접종은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주산·동진·보안·변산·백산·상서·하서·위도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보건지소에서 순회 접종을 실시한다. /부안=고병하 기자

정읍시의회, 출산 장려 시책 등 시정질문

정읍시의회가 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펼쳤다.

이도형(사진)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정읍시 독자적인 추진사업 여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운영과 공유재산의 유형별 총괄 건수와 금액·정비 실적, 정읍시 차량 보유 현황과 주거지역 주차장 보유실태 및 주차장 확충 계획, 정읍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내장산 상가지구 교량 조명사업 효과와 내장산 문화광장 내 전광판 설치 사업 개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유 현황과 문화유산 보존·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정읍시청 내 조직 확대가 필요한 분야 등 예리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어 정상섭(사진) 의원은 내장산 제2주차장에 직선도로 조성 제안, 시기동 227-25번지 일원 도시가스 설치 요청, 2022년 도시계획도로 보상지역과 개설 예정지, 연지동~초산동 천변로 인도위 지상변압기 박스 설치로 통행불편에 따른 해결책, 정읍시 인구 감소율·청년 인구 유출수·노인인구수 등 현황, 정읍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따른 대책,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정읍시의 중·단기 대책, 아양산 일원의 레포츠숲길 사업 계획, 정읍문화관 건립 완공시기, 정읍경찰서 이전 후 지역 내 사업 계획 여부 등 시정 관련 상세한 질문 후 제4차 본회의를 산회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 간담회

박준배 김제시장은 8일,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격려 간담회를 갖고 사기를 드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타국땅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김한주 다민족사랑공동체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외국인 근로자, 기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범 외국인 근로자들에 표창 수여식도 이뤄졌다. /김제=백용규 기자